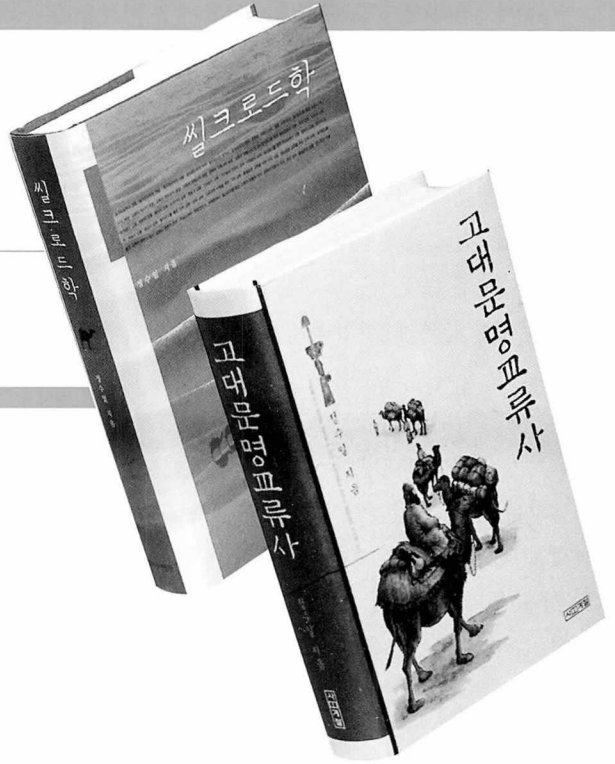


치밀한 문헌학적 고증으로 탄생한 문명교류학의 역작

《실크로드학》《고대문명교류사》

우덕찬 | 부산외대 중앙아시아어과 교수



정수일 교수의 두 책은 국내는 물론 세계 중앙아시아학계의 퀘거라 할 만하다. 실크로드에 관한 아랍어 원전들을 치밀하게 독해함으로써, 실크로드의 개념과 역할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동서문명교류의 고대사적 차원을 발굴해낸 업적은 지금까지는 거의 드물었다. 특히 동서의 교차지로서 중앙아시아와 고대 유목민족의 중요성을 명확히 규명한 점은 그동안 소홀했던 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하다

최근 중앙아시아학계는 큰 경사를 맞게 됐다. 우리에게 무함마드 간수로 알려진 정수일 교수가 최근 약 40여년에 걸친 자신의 학문연구를 집대성한 《실크로드학》(창작과비평사)과 《고대문명교류사》(사계절)라는 두권의 역저를 동시에 출간했기 때문이다. 이미 지은이는 우리 학계에 《신라·서역교류사》(단국대출판부)와 그와 관련된 수많은 연구논문 등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이번에 출간된 《실크로드학》은 총812쪽, 《고대문명교류사》는 총744쪽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의 전문 학술서다.

문명교류사를 최초로 '학문'으로 정립해

양도 양이지만 좀더 중요한 사실은 이 두권의 책을 통해 지은이가 우리나라 최초로 '문명교류사'의 학문적 정립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오늘날 거의 모든 인문학 분야가 위기에 봉착해 있는 현 시점에서 이 책들의 출간의미는 매우 큰데, 향후 주변 인문학 분야의 발전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은이는 민족분단의 아픔을 어느 누구보다도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이다. 지난 1996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영어(圍圍)의 몸이 돼 2000년 광복절 특사로 출감할 때까지 약 5년간 옥고를 치렀다. 그가

겪었던 어려움은 자신의 은사인 단국대 김원모 명예교수가 《실크로드학》 추천사에서 “발이나 겨우 뺄 정도의 공간에서 여름이면 볼펜의 잉크가 녹아나는 짐통 같은 더위, 겨울이면 손발이 굵고 동상이 걸리는 강추위 속에서, 방바닥에 책을 포개거나 물통을 얹어놓고 통계를 만들어 받쳐놓고 글을 썼다니, 그 저술작업이야말로 자기와의 싸움으로 만난(萬難)을 극복한 초인적인 업적”이라고 한 말에서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실크로드학》은 실크로드를 둘러싼 지금까지의 교통사적 연구에서 탈피해 문명교류 통로로서 그 실체를 규명해 실크로드 연구를 학(學)으로 정립코자 한 시도다. 이 책은 서장을 포함해 총8장으로 구성돼 있다. 서장은 실크로드학의 정립, 제1장은 실크로드의 전개사, 제2장은 실크로드를 통한 교류의 역사적 배경, 제3장은 실크로드를 통한 물질문명의 교류, 제4장은 실크로드를 통한 정신문명의 교류, 제5장은 실크로드를 통한 인적교류, 제6장은 실크로드를 통한 교류의 문헌적 전거(典據), 제7장은 실크로드를 통한 교류의 유물적 전거를 각각 다루고 있다. 각 절에서는 해당 주제의 정의와 내용, 특성, 의의 등을 차례로 밝혀 개념정리한 후 구체적으로 교류상을 밝

정수일 지음
창작과비평사/B5변형/812면/43,000원
사계절/A5신/744면/38,000원

히는 서술체계를 취하고 있다.

역사연구에서 외국어 원전해독 능력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 책의 백미는 뭐니 뭐니해도 참고자료로, 지은이가 아랍어 관계 사료를 치밀하게 독파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지은이는 국내 동양사학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서구어, 한문, 일본어뿐만 아니라 국내학자로는 드물게 아랍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학자다. 그의 아랍어 원전해독 능력은 역시 최근에 간행된 《이븐 바투타 여행기(전2권)》(창작과비평사)를 통해 확실히 검증된 바 있다.

실크로드에서 한반도의 중요성 강조해

7세기 이슬람의 태동 이후 아랍세력의 확장과 더불어 아랍권의 여행가, 학자들은 동서문명교류와 관련된 귀중한 기록들을 많이 남겼는데 불행하게도 서구학자들이나 동양학자들은 이런 귀중한 기록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은이의 경우, 동서문명교류와 관련된 아랍문헌 및 사료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고대문명교류 연구를 한 단계 끌어올려 놓았다고

도 볼 수 있다.

지은이는 이 책에서 전통적 시각에서 벗어나 실�크로드의 개념확대를 시도하고 있는데, 그 개념을 유라시아와 아프리카, 즉 구대륙만을 서로 잇는 문명교류 통로가 아니라 아메리카, 즉 신대륙까지 연장시켜주는 환지구적 문명교류 통로로 확대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역할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또한 지은이는 18~19세기까지 약 3백년 간 근현대 동서교류의 통로를 '신실�크로드'라 명명하고 '실�크로드학'의 후속으로 '신실�크로드학'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은이의 후학이라 할 수 있는 평가가 이역저에 대해 평한다는 것이 주제넘을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문명교류사' 아니 지은이가 이야기하는 '실�크로드학'과 같은 학문영역에서는 현지조사나 현지답사를 통한 실증적 연구방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이 책에 제시된 사진이나 삽화의 대부분이 기존의 것들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구상역사학(具象歷史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앞으로 지은이 자신의 현지조사, 현지답사를 통한 새로운 자료의 보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고대 문명교류에서 유목·기마 민족 역할 주목해
《실�크로드학》이 문명교류 연구를 위한 개설서 성격의 책이라면 《고대문명교류사》는 문명교류를 시대적으로 세분해서 고대의 문명교류 양상을 심층적으로 다룬 전문학술서다. 이 책은 서장을 포함해 총 10장 33절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문명교류의 시원, 제2장은 신석기 문화의 교류, 제3장은 청동기 문화의 교류, 제4장은 보석문화의 교류, 제5장은 유목 기마 민족과 문명교류, 제6장은 로마와 한(漢)의 교류, 제7장은 서역 개통과 문명교류, 제8장은 종교의 교류, 제9장은 고대의 실�크로드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이미 알려진 내용을 체계적으로 종합해서 기술하고 있어 지금까지

“중요한 사실은 이 두권의 책을 통해 지은이가 우리나라 최초로 ‘문명교류사’의 학문적 정립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오늘날 거의 모든 인문학 분야가 위기에 봉착해 있는 현 시점에서 이 책들의 출간 의미는 매우 큰데, 향후 주변 인문학 분야의 발전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의 고대문명 교류에 대한 연구들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그 가운데 제5장의 내용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대로부터 유라시아 대륙의 북쪽 초원지대에는 항시 유목 기마민족들이 활거하며 남쪽의 정착민족들을 침략 정복해 대제국을 건설해왔다. 동양사에 등장하는 흉노(匈奴), 선비(鮮卑), 유연(柔然), 돌궐(突厥), 회흘(回紇: 위구르), 계단(契丹: 거란), 여진(女眞), 몽고(蒙古), 만주(滿洲) 등 과 서양사에 알려진 스키타이, 사르마티안(Sarmatian), 훈(Hun), 아바르(Avar), 페체넥(Pecheneg), 에프탈리테(Hephthalite) 등은 모두 북방에서 발흥해 세력을 떨친 비정착 민족들이었는데, 바로 이와 같은 민족들은 동서문명교류에서 지대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이 지은이의 주장이다.

지은이는 특히 고대문명교류에서 유목 기마민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른바 '주변문화' (周邊文化)로서 지금까지 홀대받아온 기원전 스키타이, 흉노를 비롯한 북방 유목 기마민족에 의한 문명교류 실태를 규명하면서 이런 북방민족들과 우리 한반도 사이의 문명교류 실태도 추적하고 있다. 지은이가 서문에서 밝혔듯이 책에 이어 그 속편으로 《중세문명교류사》와 《근·현대문명교류사》의 집필을 완수함으로써 문명교류사의 학문적 정립에 천착하고자 한다면 이번 더 기대감에 부풀다. 앞서 지적했듯이 책에서도 제시된 사진이나 삽화들이 대부분 기존 연구서들에서 사용돼온 것들이라 자료의 검토와 보강이 앞으

로 지속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대중들을 위한 문명개론서로도 뜻 깊어

지난 9·11 테러사태는 그야말로 미증유의 대참사였다. 이어서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들의 보복공격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발발했고 이로 인해 오늘날 전세계가 테러와 전쟁 공포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다. 테러사태 이후, '문명간의 충돌' 이니 '문명간의 공존' 이니 '문명간의 대화' 니 하면서 문명이라는 단어가 일반인들 사이에도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평자의 관견(管見)으로 9·11 테러사태는 분명 문명간의 충돌이 아니라 문명과 비문명간의 충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문명 사이에는 상생관계와 공존관계가 존재하지 충돌관계는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시기에 문명교류와 관련된 지은이의 책들이 출간된 것은 대중들에게 문명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은이가 실�크로드학 서문에서 “이제 우리는 학문, 특히 인문학 분야에서 남의 뒤따름이 아니라, 무언가 남에 앞섬도 있어야 한다”고 밝힌 야심찬 의욕에 박수를 보내며 문명교류 연구에 관심이 있는 학자들이나 학생들에게 이 두권의 책을 자신 있게 추천하고 싶다. ■

우덕찬 교수는 중앙아시아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부산외대 중앙아시아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논문으로 《고대투르크비문에 전하는 종족명 타타비에 대한 연구》 등이 있고, 저서로 《중앙아시아 개설》 《전통시대 중국의 대외관계》(공저) 등이 있다.

“실�크로드는 문명탄생의 산실이자 문명발달의 원동력으로서 적극 기능함으로써 2천여년 동안 인류의 역사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다. 지금까지 실�크로드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 다각적으로 시도되었으나 지침이 될 만한 이론과 학문적 규범 및 과학적 연구방법이 결여된 탓으로 유사접근(類似接近)에만 머물고 있었다. 이제 그간 쌓아올린 연구업적을 토대로 하여 ‘실�크로드학’이란 새로운 국제적 학문을 정립·창출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으로 되었다”(《책머리》에서).